

성인학습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생활실천 연구: 창원지역 「시민안전문화대학」 중심으로

박신영 · 어용숙[†]
(부산대학교 · [†]동의대학교)

A study on the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Behavior of Adult Learners: Focusing on 「Civic Safety Culture College」 in Changwon City

Sin-Young PARK · Yong-Sook EO[†]
(Pusan National University · [†]Dong-Eu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behavior of adult learners who participated in 「civic safety culture college」 was held in Changwon city. We carried out a questionnaire survey that was targeted at 150 citizens, but 132 citizens were included finally.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with SPSS 21.0 statistical program. Analysis methods were t-test, one 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afety awareness point was an average of 4.17 point which was higher levels. Area showing the highest safety awareness was fire safety. Safety practice behavior point was an over intermediate level of an average of 3.58 point. Second, safety practice behavio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t=2.58$, $p=.01$), education($t=-2.57$, $p=.01$), job($t=-1.96$, $p=.05$), housing($t=3.65$, $p<.001$). Thir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ome safety awareness($r=.28$, $p<.001$), traffic safety awareness($r=.37$, $p<.001$), fire safety awareness($r=.37$, $p<.001$), emergency care awareness($r=.45$, $p<.001$) and safety practice behavior. Fourth, safety practice behavior was related to the emergency care awareness($\beta=.34$, $p=.002$), this factor accounted for 19.5% of the variability of the safety practice behavior.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very important baseline data for many different businesses and program development for strengthening of safety awareness and spreading of safety culture in Changwon city.

Key words : Adult learner, Safety awareness, Safety practice behavior

I.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50년간 압축적인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이루어냈다. 이렇듯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보기 드문 일이다. 그러나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극대화

우선의 경제성장은 속도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결과지향주의, 안전불감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메르스 사태는 한국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들 사고들은 우리 사회전반에 무너진 기본·원칙·신뢰,

[†] Corresponding author : 010-5113-6190, nursingeo@deu.ac.kr

국민의 낮은 안전의식, 체계적인 국가재난대응시스템 부재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인적피해를 키운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사회에 잠자고 있던 안전의식을 일깨워 주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안전의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Kim Tae-Eun, 2014).

Lee Dong-Kyu & Min Youn-Kyoung(2015)에 의하면 국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강할수록 정부신뢰는 저하되는데, 이는 국민들이 재난관리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었으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Na Chae-Joon, 2014).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존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총괄부서,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합쳐 재난안전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민안전처가 공식 출범(2014. 11월)하였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2014. 11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유·초·중·고 발달단계별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을 마련하여 2015년 2월에 학교에 제공하였다. 7대 영역 표준안은 체험과 실습 위주로 유아에서 고교까지의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제2의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작은 정부인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장 안전문화진흥(신설 2013. 8. 6) 제66조의 2에 의거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 개발 및 보급,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안전관련 통계 현황 관리·활용 및 공개,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등의 다양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사회가 없듯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사고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Hong Sung-Tae, 2014). “생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는 안전에 대한 인지도”(Kim Hye-Woo, 2002)인 안전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행위”(Worick, 1975, Park Pil-Nam, 2003 재인용)인 안전생활실천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안전의식 및 안전생활실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역에서의 기존연구들을 보면 주로 유아를 비롯하여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이 많다(Kim Hye-Woo, 2002; Kim Sang-Youp, 2015; Lee Hyo-Choel et al., 2012, Lee Won-Joo et al., 2015; Park Pil-Nam, 2003, Yoon Young-Mi et al., 2014). 그러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및 안전생활실천을 파악한 연구로는 대구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Lee Hee-Taek(2010) 연구와 부산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Bae Jeung-Lee et al.(2012) 연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생활실천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현재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생활실천 정도는 어떠한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수도 선언(2006. 11월)과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2014. 1월)을 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현재 「3기 시민안전문화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민안전문화대학」은 창원시가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 지도자양성을 위해 2014년 3월 제1기를 시작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15년 상반기(3~6월)에 운영되고 있는 「3기 시민안전문화대학」은 총 12회기(주 1회, 수, 14:00~16:00)로 진행되며, 노래교실(60분)과 안전교육(60분, 대부분 강의중심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교육의 세부적 내용은 안전한 창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교통사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 자살의 이해와 예방, 화재와 재난예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창원의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 건강백세를 위한 약초 이용법, 문화탐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결과는 창원시가 향후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창원지역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과 안전생활실천 정도를 살펴보고, 안전생활의식과 안전생활실천의 관계를 규명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창원시에서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 지도자 양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문화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2015년 6월 3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50부를 배부하여 141부가 회수되었으며, 답변이 불충분한 9개를 제외한 총 132개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자가 89.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50-59세가 68.9%로 가장 많았다. 교육 정도는 고졸이하가 72.0%이었고, 대졸이상이 28.0%이었다. 직업은 없는 경우가 67.4%로 과반

수를 넘었으며,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59.8%, 단독주택 등에 사는 경우가 40.2%이었다. 월수입은 301만원 이상이 전체의 50.0%를 차지하였으며, 151-300만원 이하가 3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사고경험은 있는 경우가 24.2%로 없는 경우인 75.8%보다 매우 적었다. 안전교육 경험은 64.4%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35.6%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2)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Sex	Male	14	10.6
	Female	118	89.4
Age	<49	12	9.1
	50-59	91	68.9
	≥60	29	22.0
Education	≤high school	95	72.0
	≥ college	37	28.0
Job	Yes	43	32.6
	No	89	67.4
Housing	Apartment	79	59.8
	Detached house	53	40.2
Monthly income (Manwon)	≤150	17	12.9
	151-300	49	37.1
	≥301	66	50.0
Experienced of disaster	Yes	32	24.2
	No	100	75.8
Experienced of safety education	Yes	85	64.4
	No	47	35.6

2. 조사도구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조사도구는 <Table 2>와 같다. 설문지 문항은 개인의 일반적 특성, 안전의식, 안전생활실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개인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연령·학력·직업유무·주거형태·월수입 6문항, 안전사고경험 1문항, 안전교육경험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안전의식은 가정안전의식, 교통안전의식, 화재안전의식, 응급처치안전의식에 대한 조사도구로 총 42문항을 활용하였다. 안전생활실천은 환경안전행동, 화재예방행동, 생활안전행동, 시설

안전행동으로 구성된 18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도구인 안전의식과 안전생활실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안전의식

안전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im Hye-Woo(2002)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기 때문에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1개 문항 즉, ‘학교의 각 교실에서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경로와 출구와 비상구 위치를 익혀 두어야 하다’를 ‘건물에 들어갈 때는 건물 출구나 비상구 위치를 익혀 두어야 한다’로 성인학습자 특성에 맞게 수정하였다. 수정한 내용은 안전교육전문가 1인과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교수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안전의식의 하부요인으로는 가정안전의식 13문항, 교통안전의식 12문항, 화재안전의식 8문항, 응급처치안전의식 10문항으로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통안전의식 문

항 중 ‘자전거를 탈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한다’ 문항의 신뢰도가 낮아 이 문항은 삭제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Hye-Woo(2002)의 연구에서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가정안전 .76, 교통안전 .83, 화재안전 .72, 응급처치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가정안전 .84, 교통안전 .89, 화재안전 .90, 응급처치 .81로 나타났다.

나. 안전생활실천

본 연구는 안전생활실천을 측정하기 위해 Kim Hee-Sun(2006)이 개발한 도구를 Lee Hee-Taek(2010)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Lee Hee-Taek은 시민대상으로 안전생활실천의 도구 타당도를 확인하여 총 19문항을 추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창가나 베란다에는 영아가 닫고 올라설 만한 가구나 물건이 있다’ 문항이 신뢰도가 낮아 삭제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for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Behavior

Instruments		Item Number	Number of items	Cronbach Alpha for this study	
Safety Awareness	Home Safety	Life Safety	5, 6, 11, 12, 13	.63	
		Facility Safety	1, 2, 3, 4, 7, 8, 9, 10	.79	
		Subtotal		.84	
	Traffic Safety	Pedestrian Safety	1, 2, 3, 4	4	.69
		Bicycle Safety	5, 6, 10, 11	4	.77
		Public Transport Safety	7, 8, 9	3	.84
		Subtotal		11	.89
	Fire Safety	Fire Prevention	1, 2, 3, 4	4	.83
		Action Tips	5, 6, 7, 8	4	.85
		Subtotal		8	.90
	Emergency Care	Emergency General Principles	1, 2, 3, 4	4	.87
		Emergency Action Tips	5, 6, 7, 8, 9, 10	6	.78
		Subtotal		10	.81
Total			42	.91	
Safety Practice Behavior	Environmental Safety Action	1, 12, 13, 14	4	.58	
	Fire Prevention Action	2, 3, 4, 5, 6	5	.76	
	Life Safety Action	15, 16, 17, 18	4	.66	
	Facility Safety Behavior	7, 8, 9, 10, 11	5	.71	
	Total			18	.85

하였다. 안전생활실천의 하부요인으로는 환경안전행동, 화재예방행동, 생활안전행동, 시설안전행동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생활실천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Lee Hee-Taek(2010)연구에서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환경안전행동 .72, 화재예방행동 .79, 생활안전행동 .80, 시설안전행동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환경안전행동 .58, 화재예방행동 .76, 생활안전행동 .66, 시설안전행동 .7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PC 21.0 program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안전생활의식 즉, 가정안전의식, 교통안전의식, 화재안전의식, 응급처치안전의식과 안전실천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실천정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정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연구대상자의 안전생활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생활실천 정도

연구대상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생활실천 정도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안전의식 정도는 전체 4.17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정안전의식은 전체 4.00점이었으며,

하부요인으로는 시설안전 4.02점, 생활안전 3.98점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의식은 전체 4.28점이었으며, 하부요인으로는 대중교통안전 4.39점, 자전거안전 4.26점, 보행자안전 4.19점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의식은 전체 4.38점이었으며, 하부요인으로는 화재시 행동요령 4.40점, 화재대비 4.36점이었다. 응급처치안전의식은 전체 4.03점이었으며, 응급대비 4.32점, 응급시 행동요령 3.74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안전생활실천 정도는 전체 3.58점이었으며, 하부요인별로는 생활안전행동 3.84점, 환경안전행동 3.78점, 시설안전행동 3.39점, 화재예방행동 3.30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Level of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Behavior (N=132)

Variables		M	SD	
Safety Awareness	Home Safety	Life Safety	3.98	0.64
		Facility Safety	4.02	0.61
		Subtotal	4.00	0.58
	Traffic Safety	Pedestrian Safety	4.19	0.59
		Bicycle Safety	4.26	0.53
		Public Transport Safety	4.39	0.61
		Subtotal	4.28	0.52
	Fire Safety	Fire Prevention	4.36	0.56
		Action Tips	4.40	0.59
		Subtotal	4.38	0.59
	Emergency Care	Emergency General Principles	4.32	0.53
		Emergency Action Tips	3.74	0.73
		Subtotal	4.03	0.53
	Total		4.17	0.56
	Safety Practice Behavior	Environmental Safety Action	3.78	0.63
Fire Prevention Action		3.30	0.90	
Life Safety Action		3.84	0.60	
Facility Safety Behavior		3.39	0.68	
Total		3.58	0.53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생활실천 정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생활실천 정도는 성별, 학력, 직업유무, 주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Table 4> Safety Practice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2)

Characteristics	Total		Environmental Safety Action		Fire Prevention Action		Life Safety Action		Facility Safety Behavior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Sex	Male	3.47(.32)	-0.80(.43)	3.38(.76)	-2.58(.01)	3.40(.61)	0.45(.65)	3.75(.51)	-0.58(.57)	3.34(.58)	-0.27(.79)
	Female	3.59(.55)		3.82(.60)		3.28(.93)		3.85(.61)		3.39(.69)	
Age	<49	3.62(.30)		3.90(.42)		3.43(.98)		3.43(.98)		3.63(.39)	
	50-59	3.58(.58)	0.17(.85)	3.79(.63)	0.51(.60)	3.31(.94)	0.31(.73)	3.31(.94)	0.96(.39)	3.87(.59)	0.35(.70)
	≥60	3.53(.48)		3.69(.71)		3.20(.77)		3.20(.77)		3.81(.68)	
Education	≤ high school	3.55(.58)	-0.71(.48)	3.77(.62)	-1.16(.87)	3.19(.94)	-2.57(.01)	3.87(.63)	1.13(.26)	3.39(.71)	-0.06(.96)
	≥ college	3.63(.38)		3.79(.67)		3.58(.74)		3.74(.50)		3.39(.60)	
Job	Yes	3.52(.55)	-1.71(.09)	3.77(.62)	-0.25(.80)	3.19(.90)	-1.96(.05)	3.83(.59)	-0.31(.76)	3.30(.65)	-2.29(.02)
	No	3.69(.50)		3.80(.65)		3.52(.87)		3.86(.62)		3.58(.70)	
Housing	Apartment	3.64(.49)	1.78(.08)	3.84(.26)	1.46(.15)	3.52(.79)	3.65(<.001)	3.86(.58)	0.63(.53)	3.34(.66)	-0.98(.33)
	Detached house	3.47(.58)		3.68(.71)		2.96(.96)		3.80(.62)		3.46(.72)	
Monthly income (Manwon)	≤ 150	3.51(.47)		3.48(.75)		3.31(.89)		3.97(.58)		3.27(.80)	
	151-300	3.53(.59)	0.58(.56)	3.78(.66)	2.03(.14)	3.09(.93)	2.18(.12)	3.79(.60)	0.51(.60)	3.47(.68)	0.62(.54)
	≥ 301	3.63(.52)		3.84(.57)		3.44(.88)		3.85(.60)		3.37(.66)	
Experienced of disaster	Yes	3.72(.60)	1.84(.07)	3.89(.78)	1.18(.24)	3.56(.93)	1.93(.06)	3.91(.64)	0.84(.40)	3.53(.81)	1.36(.18)
	No	3.53(.51)		3.74(.57)		3.21(.88)		3.81(.58)		3.34(.63)	
Experienced of safety education	Yes	3.61(.54)	0.88(.38)	3.79(.63)	0.36(.72)	3.34(.93)	0.80(.43)	3.87(.58)	0.79(.43)	3.42(.68)	0.67(.51)
	No	3.52(.53)		3.75(.62)		3.21(.86)		3.78(.63)		3.34(.68)	

성별에 따라 환경안전행동에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환경안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8, p=.01$).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고 고졸이하보다 화재예방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7, p=.01$).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화재예방행동이 높았으며($t=-1.96, p=.05$),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단독주택 등 아파트에 살지 않는 경우보다 화재예방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65, p<.001$).

3. 안전의식과 안전생활실천과의 관계

대상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생활실천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5>. 안전생활실천은 응급처치 안전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45, p<.001$), 응급처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안전생활실천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안전($r=.37, p<.001$)과 화재안전($r=.37, p<.001$)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통안전의식과 화재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안전생활실천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생활실천은 가정안전의식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8, p<.001$). 즉, 가정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안전생활실천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의식과 안전생활실천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안전생활실천을 종속변수로 하고 안전의식 하위영역 전체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Behavior (N=132)

Variables	Home Safety Awareness r(p)	Traffic Safety Awareness r(p)	Fire Safety Awareness r(p)	Emergency Care Awareness r(p)
Traffic Safety Awareness	.64(<.001)			
Fire Safety Awareness	.59(<.001)	.72(<.001)		
Emergency Care Awareness	.47(<.001)	.59(<.001)	.66(<.001)	
Safety Practice Behavior	.28(<.001)	.37(<.001)	.37(<.001)	.45(<.001)

분석방법은 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 전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8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Du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98로 검정통계량(1.74)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공차한계와 variation inflation factor(VIF) 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거나 VIF의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8.954$,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195로 나타나 안전의식의 하위변수가 안전생활실천을 19.5% 설명하였다. 안전생활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급처치안전의식($\beta=.34$)이었으며, 그 이외의 안전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6>.

<Table 6> Variables Influencing Safety Practice Behavior (N=132)

Variables	B*	SE	β	t(p)
Constant	1.37	.39		3.506(.001)
Home Safety Awareness	.02	.10	.02	0.157(.88)
Traffic Safety Awareness	.13	.13	.13	1.007(.32)
Fire Safety Awareness	.04	.13	.04	0.340(.73)
Emergency Care Awareness	.35	.11	.34	3.200(.002)

$R^2=.220$, Adj. $R^2=.195$, $F=8.954$, $p<.001$

SE=Standard error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남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기 시민안전문화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

습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생활실천의 정도 및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창원시에 시민안전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지금부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논의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논의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전체 평균 4.1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안전의식은 화재안전의식(4.38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교통안전의식(4.28점), 응급처치안전의식(4.03점), 가정안전의식(4.0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화재안전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Lee Hee-Taek(2010)의 연구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Sang-Youp(2015)의 연구에서도 화재안전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3기 시민안전문화대학」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들의 안전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응답자의 64.4%가 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부산관학과 학생들의 소방안전교육 경험과 생활안전의식을 연구한 Lee Won-Joo,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소방안전교육 경험은 생활안전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 Hye-Woo(2002)의 연구에서도 안전교육을 받은 학생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 안전의식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창원시는 향후 시민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특히 응급처치안전의식과 가정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안전생활실천 수준은 전체 평균 3.58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에서는 생활안전행동(3.84점)과 환경안전행동(3.78점)의 점수가 시설안전행동(3.39점)과 화재에

방행동(3.3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안전생활실천(전체평균 3.58점)이 안전의식(전체평균 4.17점)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Lee Hee-Taek(2010)의 연구와 Kim Sang-Youp(2015)의 연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안전의식의 하위요인에서 화재안전의식과 교통안전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 화재예방행동을 잘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안전의식 점수보다 안전생활실천 점수가 낮은 것은 अभी 실천으로 연계되지 못한 결과이며, 안전생활실천이 체화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3기 시민안전문화대학」은 매주 수요일 14:00~16:00, 총 12회기로 진행되나 노래교실 1시간, 안전교육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방법은 이론위주의 강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생활실천을 강화하는 데는 다소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안전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생활실천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생활실천 정도는 성별, 학력, 직업,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이 환경안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졸이상, 직업이 있는 경우가, 아파트 거주하는 경우가 화재예방행동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Lee Hee-Taek(2010)에서도 안전생활실천은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이면서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많은 입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인 아파트는 개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화재예방행동을 잘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안전의식과 안전생활실천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급처치안전의식($r=.45, p<.001$)이 높을수록, 교통안전의

식($r=.37, p<.001$)과 화재안전의식($r=.37, p<.001$)이 높을수록, 가정안전의식($r=.28, p<.001$)이 높을수록 평소 안전생활실천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Sang-Youp(201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안전의식과 안전생활실천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95, p=.000$).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안전생활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응급처치안전의식($\beta=.34$)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안전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Lee Hee-Taek(2010)의 연구에서도 안전생활실천행위에 응급처치의식($\beta=.232$)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Kim Sang-Youp(2015)의 연구에서는 응급처치안전의식($\beta=.768$)과 교통안전의식($\beta=.159$)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Lee Hee-Taek(2010)의 연구에서 응급처치의식은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든 성인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응급처치안전의식이 높고 안전한 생활을 일상 속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과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창원시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강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안전생활실천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시책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아동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안전문화대학」이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 지도자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현재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성인학습자들의 화재안전의식은 높으나, 일상생활에서 화재예방행동을 잘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험위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생활실천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고려한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창원지역의 「3기 시민안전문화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도출된 것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향후 보다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시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생활실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Bae, J. Y. et al.(2012). A Study on the Safety Awareness and Behavior of the Citizens of Busa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8(1), 197~214.
- Hong, S. T.(2014). Diagnose Risk Society- Toward the Security Society over the Accident Society. Seoul: Aropa.
- Kim, H. S.(2006). The Parents Consciousness and Performance about the Infants safety and Home safety circumsta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 Kim, H. W.(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easuring Scale of Safety Consciousnes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S. Y.(2015).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2), 279~289.
- Kim, T. E.(2014). The role of law in modern society than the risk society- Focusing on the position of our country and to prepare for the safety frugidity. National Public Law Study, 10(2), 1~20.
- Lee, D. K. & Min, Y. K.(2015). After Ferry Sewol Disaster, How does Disaster and Safety Perception Affect Government Trust? - Centers on the Omnibus Survey of Disaster and Safety Perception Conducted by Korean Research,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11(3), 19~38.
- Lee, H. C. · Jang, Y. S. & Choi, E. Y.(2012). Actual Survey on the Safety Conscious Practice and First Aid Knowledge of Health Department and Non-Health Department Female College Students (Oriented to Gwangju area),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linical Electrophysiology, 10(2), 43~49.
- Lee, H. T.(2010). The Effects on Safety Life Practicing Behavior by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awareness, Daegu Haany University.
- Lee, W. J. · Kwon, S. Y. · Kang, S. H. & Nah, Y. C.(2015). Research for the Experience of Fire Fighting Aafety Education and Living Safety Consciousness of Department of Noncommissioned Office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30(4), 159~167.
- Na, C. J.(2014). The Study on safety culture legal improvement of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ublic land law review, 65, 361~383.
- Park, P. N.(2003). A Study of Primary School Students' Practicing Safety Procedure during Their School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16(2), 85~95.
- Yoon, Y. M. · Sung, K. S. & Kim, E. J.(2014).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Practicing Behavior and Perception about Safety Management Service System of University Campu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1(6), 1033~1042.

-
- Received : 21 September, 2015
 - Revised : 02 November, 2015
 - Accepted : 11 November, 2015